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분야 지원 대폭 확대

초·중·고 12개 학교 선정 통합교육 동아리 지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과 연계 '통합교육지원 대학생 자원봉사제' 열어

광주교육청이 특수교육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통합교육 동아리 운영과 통합교육지원 대학생 자원봉사제, 특수교육 진로체험축전 등 통합교육·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 확대와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학교(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9개 특수학급을 신설했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특수학급 10학급이 증설돼 총 224교에서 291개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우선 일반학교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통합교육 동아리를 지원한다. 올해 초6, 중3, 고3 총 12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교육 학교문화조성의 적극적 개입자로서 일반교사, 특수교사 구분 없이 모두 운영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광주 지역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와 연계해 '통합교육지원 대학생 자원봉사제'를 시행한다.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예비교사)이 교육활동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등교 개학 이후에 바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 동기 부여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2020 광주특수교육진로체험축전(가칭)'도 준비하고 있다.

또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 및 특기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기적성교육 개별지원비를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 휴원 또는 치료 지원 중단에 따라 3월부터 미 사용된 치료지원비는 8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부터 과제물 제공, 가정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학교 등교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학생들이 등교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신문 제작을 지원했다.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신문 '같이 걸을까?'는 ▲우리 지역 장애인 연합밴드 인터뷰 ▲장애 유튜버 4인방 소개 ▲코로나 관련 보완대체 의사소통 카드 ▲장애인 참정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문(11만2950부)은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KT와 AI 기반 치매극복 플랫폼 구축

이건호 단장·구현모 대표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단장 이건호)이 KT(대표 구현모)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치매극복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20일 오전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KT 광화문 신사옥에서 KT와 치매극복 연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아시아 최대 치매 전주기 추적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으며, KT는 국내 최다 데이터센터와 최초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했다.

양측은 이날 치매연구 데이터와 분석 시스템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목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조선대 제공〉

학생들 가정에 식재료 공급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전남교육청, 도내 전체 학생에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내 전체 학생들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펼친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남도와 협업해 지역 초·중·고 19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 당 4만 원(유치원 2만4000원) 상당의 곡류와 채소류, 과일류 등 전남 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오는 30일까지 각 가정에 배송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과 전남도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83억원을 긴급 집행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온라인 개학이 지속될 경우 추가 공급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공급업체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이고 있다. 또 이번 사업이 한시적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급식의 희망적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우수 친환경농산물이 가정으로 배송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외식조리과학과
양동시장 활성화 MOU체결

호남대학교 외식조리과학과(학과장 김영균)는 최근 광주 서구 양동 경열로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동 경열로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호남대학교 외식조리과 교수 및 양동 경열로시장 상인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호남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생정결 사업, 상인 교육사업, 양 기관의 실습시설 및 실습기자재 활용, 학생들의 창업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신설 모집정원 늘려

여수지역 고급산업인력 배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3개 첨단학과 3개가 신설되고, 여기에 130명의 정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돼 고급산업인력 배출은 물론 여수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첨단학과 모집단위 조정 신청을 교육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바이오헬스케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이들 3개 학과에 130명의 정원을 늘려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남대는 입학정원 의무감축(10%)과 대학구조개혁 차원의 감축(10%)에 이어 전남대-여수대 통합으로 10%를 추가 감축하는 등 지금까지 광주캠퍼스는 25%, 여수캠퍼스는 42%의 정원을 줄여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 초과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

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

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 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웹툰 제작 인력양성
광주 동구와 고용부 공모사업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4차 산업시대 성장분야이자 미래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중 하나인 웹툰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동강대 평생교육원(원장 윤찬호)은 올해 광주동구와 손을 잡고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웹툰 제작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은 전액 국비로 실전 웹툰, 이모티콘, 캐릭터디자인, 미술아동심리 등의 과정을 총 144시간 동안 진행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